

조교수

자료 보내줘서 고맙습니다.

아침에 양미강총무가 전화를 하셨기에 어제 했던 얘기들을 대강 했어요. 그리고 헤진스님이나 정대협이 법륜들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구요. 더구나 오늘 저녁은 내가 강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고, 양총무께서는 피서변호사에게 나눔의 집 할머니들과 한 계약 내용이 이쪽에서 보기에 상당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수락할 수 없으며, 미국의 소송에 대한 실체법적 근거와 소송과정에 대한 전략, 피해자와 미국 변호사들 사이의 역할분담 및 권한배분, 승소 내지 화해절차의 참가자와 의사결정, 승소 내지 화해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문서로 그쪽의 안을 낼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마무리짓고 돌려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.

말로는 내 말에 동의를 하였는데 분위기는 아쉬움이 매우 많아 보이는 것을 보면 막상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네요. 참고하세요.

조용환